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무주군, 100억 투자... 인재양성·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주력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도 '교육과 문화'로 지역기반을 다지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한다.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에 1백여 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인재양성과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인재육성 사관학교(중 2~3학년, 고 1~2학년)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무주사랑 1004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무주군 출신 대학생 199명을 선발(2017년 151명, 1억 3천여만 원 지급)해 장학금도(1억 8천여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 중·고등학교(10개교) 재학생(110명)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통학택시 지원 사업에는 1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된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지역실정과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년여 간에 편찬 작업을 마무리한



무주군은 무주사랑 1004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관내 초·중·고와 무주 대학생 199명을 선발(2017년 151명)해 장학금도(1억 8000여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무주문화대전'은 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는 공식운영에 들어간다. 무주군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디지털화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 콘텐츠산업 발달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도봉 생활권(무주, 감천, 영동)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행도 활성화된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주 3~4회 세 지역 9개면 6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기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요양원과 경로당 등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문화행복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학교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군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평생교육을 사회서비스로 지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좋은 기운이 불같이 일어나길'

진안군 안전면, 면민 화합 달집태우기 행사 가져

진안군 안전면(면장 정흥기) 청장년회는 지난 2일(정월 대보름) 저녁 안전면 소공원에서 면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해의 액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소원지 달기를 시작으로 풍물패를 앞장세워 참가자와 풍물놀이로 흥을 올린 한바탕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 면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냈다.

음력 정월 15일은 우리 겨레가

즐거온 큰 명절 중 하나다. 예로부터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는 오곡을 형상화한 곡식 낱가리를 세워 병충해로부터 오곡백과를 보호하고 알일이 영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정흥기 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무술년 한해 면민들의 모든 액운을 달집에 실어 모두 태워 날려 보내고 활활 타오르는 달집처럼 모든 가정에 송액영복, 안가태평의 좋은 기운이 불같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장수군은 물놀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지난 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는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토목동계곡과 덕산계곡, 방화동가죽휴게촌, 요천, 비룡, 연평지구 등 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수영미숙과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취약지역의 로프, 구명환 등 인명구조 장비의 훼손 여부와 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파손여부, 인명구조함 내 물품 멸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 훼손이 심한 안전시설은 폐기하고 사용 가능 시설은 쉽게 접근 가능도록 재배치하며 인명 피해 발생 지역은 출입통제 및 접근 금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물놀이 위험구역 및 안전 사각지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했다.

한편 장수군은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다문화 한국어교육 개강식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5일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실시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이번 개강식은 앞으로 교육을 참여하게 될 무주군 6개 읍·면의 결혼이민자 47명을 초청하여 2018년 교육 과정 안내 및 공지사항 전달, 감사외의 시간으로 꾸며지게 되며 더불어 한국어 배우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공감 요소를 가미해 그들의 고충을 잠시나마 위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이불빨래방 운영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이불세탁 서비스는 진안군과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관내 사당나눔방, 복지시설,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빨래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겨우내 사용한 이불을 세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과수, 봄부터 풍년농사 준비 철저

군, 사과·배 저온 피해 예방제·꽃가루 지원, 병해충 예찰 강화도

장수군은 올해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과, 배 저온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저온 피해 예방제를 3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수정벌의 활동이 약하므로 수분·수정을 저하를 방지하고 정형과일 생산을 위해 인공수분용 꽃가루도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고온과 가뭄으로 인하여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노린재 등의 병해충 발생이 많아 농가 피해가 많았으며, 올해에도 기온이 높아져 발생율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기 병해충 방제와 일소피해 및 탄저병의 감소를 위해 영농철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현철 과수특작과장은 "겨울철 한파의 지속과 과수 생육기 이상기온으로



장수군은 올해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과, 배 저온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저온 피해 예방제를 3월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과실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944농가가 1,144ha면

적의 과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3만1,622톤에 이르고 지난해는 홍풍과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추진한바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

'딸기'를 고랭지 특성을 살린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주군이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험형 딸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겨울딸기를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조성(0.2ha)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딸기산업을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3월 중 대상 농가를 선정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 대한 교육 및 견학 등을 병행하며 4월부터는 하우스와 난방시설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종철 소독작목 담당은 "9월부터 겨울딸기를 심으면 11월부터는 수확과 출하, 일반인 대상 체험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체험농장이 무주군의 딸기산업을 키우고 맛을 제대로 알리는 농촌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기술 교육 및 운영 노하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 겨울딸기를 시범

재배(2농가 0.6ha)해 11월부터 출하(~5월)를 시작했으며 시범재배에 참여했던 농장에서는 4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딸기수확 체험을 비롯해 딸기잼 만들기, 딸기 컵 케이크 만들기, 딸기 풍류, 딸기과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장주 한은성 씨(무주읍)는 "우리군 최초로 겨울딸기를 농사지어 재배로 수확까지 해냈다는 자부심이 크다"라며 "시장에서도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한 뿐만 아니라 크기, 맛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4월까지 운영하는 체험농장을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2010년 고랭지 여름딸기(제과·제빵용) 재배를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겨울딸기 재배를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는 딸기 육묘를 재배해 전국 딸기 재배단지에 공급하면서 딸기 종묘와 생과 생산이 모두 가능한 딸기 강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취득	